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한다

벚꽃길 따라 달리는 마을버스

전주시, 9억5000만원 투입 21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대상 보행자 안전 시설 개선… 교통약자 보행환경 확충

전주시가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확충기로 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총 9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정주지역 21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시민성을 높여 운전자의 감속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유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옐로카펫 조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중산초 등 전주지역 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올

해 상반기까지 신규 옐로카펫 설치 및 재도색 등의 정비를 완료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차량 통행과 분리된 통학로 개설사업도 추진한다.

대표적 내용을 보면 시는 진북초 등 도로와 인접한 3개 초등학교 주변에 인도를 신설하고, 스텝 포장 등 보행자가 눈에 잘 띄는 노면 표시 작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전용 통학로를 확충한다.

이와함께 시는 올 연말까지 △신호 위반 차량 단속은 물론 과속 차량 단속까지 감시할 수 있는 '무인교통단속 장비 성능 개선' △야간시간대와 악천

후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주는 'LED 바닥신호등 설치' △아이들의 갑작스런 도로 진입을 방지할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완료해 위험 요소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특히 시는 노인들이 자주 왕래하는 복지관 주변 노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 정비도 추진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시는 기린봉·덕진노인 복지관 등 2개 노인복지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보호구역을 알리는 시·종점 노면 표시와 차량 속도 측정기(스피드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환기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노후 인도 울타리를 교체해 차량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안전하고 불편 없는 교통약자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보호구역 시설 개선과 함께 꼼꼼한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성숙한 교통문화 확립의 지름길"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4~7일 '만경강변 벚꽃길 맞춤형 특별노선' 한시적 운행

전주시가 벚꽃이 만개한 봄철을 맞아 주말 봄나들이를 즐기는 시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특별노선을 운행하기로 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봄철 벚꽃길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교통혼잡 완화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만경강변 벚꽃길 맞춤형 특별노선'을 한시적으로 운행한다.

'벚꽃길'은 전주천부터 만경강까지 이어지는 총 13.5km 구간으로, 해마다 봄이 되면 만개한 벚꽃을 즐기기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으며 전주를 대표하는 볼꽃 명소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주차난과 교통혼잡이 반복돼왔다.

이에 시는 접근성이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벚꽃길 구간을 연결하는 맞춤형 특별노선을 운행하고, 전기차량(카운티 일렉트릭)을 투입해 친환경 교통 실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노선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출발해 도립국악원을 경유한 후 벚꽃 명소가 집중한 천천로와 만경강변을 따라 운행된다.

운행구간은 총 15.9km(편도 기준)로, 전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데 약 70~80분이 소요되며 시는 하루 5회 왕복 운행(총 10회)할 예정이다.

특별노선 이용요금은 기존 마을버스와 동일한 500원으로,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도로 상황에 따라 소폭의 도착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비교적 일정한 안전적인 배차 간격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4~7일 '만경강변 벚꽃길 맞춤형 특별노선'을 한시적으로 운행한다.

자가용 이용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주차장을 이용하면 되며 시내버스 이용객은 도립국악원에서 환승하면 특별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벚꽃길 특별노선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여유롭게 벚꽃길을 걸기로, 자가용 이용을 줄여 교통체증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이번 특별노선은 시민들의 볼꽃 나들이를 더욱 여유롭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특히 탄소 배출이 없는 전기버스를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도시교통에 대한 시민적 공감도 함께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민들께서는 자가용 대신 특별노선을 이용해 벚꽃길을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노선 이외에도 마을버스의 기존 노선 40번과 41번, 40번이 이 구간 일부를 나눠 운행하고 있으며, 특히 40번의 경우 기점(월드컵경기장)과 종점이 같아 기점에서 타면 편도 요금만으로 만개한 벚꽃을 구경하고 안정적인 배차 간격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미나리 추출복합물’ 숙취 해소 가능성 입증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과학적 검증 통해 효과 확인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김상남, 이하 연구원)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미나리 추출복합물의 숙취 해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제 강화에 대응해 진행된 것으로, 연구원은 전주 미나리 추출복합물의 숙취 해소 가능성을 과학적 검증을 통해 효과를 확인했다.

이번 인체적용시험은 만 19세 이상~40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그 결과 미나리 추출복합물 섭취군에서 알코올 섭취 후 혈중알코올농도와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발한과 떨림, 위장장애, 구역질, 현기증 등 57가지 주요 숙취 증상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알코올 섭취 15시간 후 평가한 급성 숙취 정도에서도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여 미나리 추출복합물이 만성적으로 숙취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특히 전체 시험대상자에서 이상 반응이 발생하지 않았고, 진단검사 및 활력징후 모두 정상으로 나타나 인체에 대한 안전성도 함께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연구원으로부터 전주 미나리 숙취 해소 추출물 특허·상표권을 이전받은 관내기업 바이오모아메디칼(주)(대표이사 이동한)은 전주 미나리 추출복합물을 이용한 스틱형 숙취 해소 ‘깨나리’ 제품을 지난해 5월 출시했으며, 지난달 27일 이번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토대로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미나리 추출복합물의 숙취 해소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나해 5월 출시했으며, 지난달 27일 이번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토대로

‘깨나리’ 제품에 대한 한국식품산업협회 숙취 해소 기능성표시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바이오모아메디칼(주) 등 지역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깨나리’ 등 미나리 추출물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숙취 해소 제품 개발을 도와 기업 성장을 견인하도록 힘을 계속키다.

김상남 연구원장은 "전주의 대표 농산물인 미나리의 우수성을 현대 과학으로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전통적으로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미나리의 효능을 체계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전주미나리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 농가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성과를 토대로 미나리 추출물 효능에 대한 추가연구를 진행하고, 과학적 근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삼천동 묘지 정비사업 집중 홍보

전주시가 한식을 맞아 성묘객을 대상으로 삼천동 묘지 정비사업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시는 해성고등학교 인근 사유지에 무단으로 조성된 묘지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연고자 파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3일 현재까지 일부 분묘의 경우 주인 또는 연고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시는 한식을 기해 묘지를 방문하는 성묘객들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조속히 이장을 할 수 있도록 연고자 개별상담, 전단지 배부 등 현장홍보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삼천동 공동묘지 일제 조사를 통해 유언분묘 229기와 무연분묘 147기 등을 확인했으며 이장에 대한 보상 일환으로 1기당 377만1940원을 보상비로 지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사업구역 내 유언분묘 중 약 85%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잔여 유언분묘에 대한 이장 및 보상신청을 6월말 받을 계획이다.

유언분묘 연고자의 보상금 신청은 전주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063-281-2273에서 받고 있으며 기한내 이장을 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올 하반기 개장유령 실시한 후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일상 속 자전거 챌린지’ 6월까지 전개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3개월 동안 '전주시 일상 속 자전거 챌린지'를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전주시민들의 일상 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이번 챌린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과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도

모한다는 구상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지정된 앱에 연결한 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주시 교통정책과(063-281-2568) 또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063-282-2959)로 문의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매일 30km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면 주평일수 등

조건에 맞춰 혜택이 제공되며, 월별 도전을 달성하면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시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전주 지역 기관 및 기업의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전주시 교통정책과(063-281-2568) 또는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063-282-2959)로 문의하면 된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이번 자전거 챌린지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자전거가 전

주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번 챌린지 외에도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자전거의 날'(4월 22일)을 맞아 경희의전당 잔디광장(완산구 바담썸는길 120)에서 자전거 챌린지와 연계한 풍성한 기념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영역은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